

# 이해찬 “文 포용적 성장 모델 국민소득 4만弗 시대 열게 할 것”

“독창적인 복지·혁신성장모델 함께 창출해 내야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 줄 수 있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가 올해 한국 국민소득을 3만2000달러로 예상한 것을 인용해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며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고 포용적 성장의 당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포용적 성장 모델과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정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라며 “늘어

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그는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현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며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 전북도, 민선7기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본격 가동

ARSR와 전화면접 통해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도민 50명 참여  
공약 실천계획의  
적정성·타당성 평가  
개선요건 제시 등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 도민중심의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도민평가단 1차회의에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전북 대도약을 위한 희망을 적은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가 민선7기 송하진 도정의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와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도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꾸리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출범식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평가단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출범한 평가단은 전북도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평정한 참여기회 제공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 등을 위해 전북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여 만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시군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ARSR)과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평가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니페

스토 운동과 도민평가단의 운영’이란 주제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의 특강과 사전교육이 이어졌다.

평가단은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송하진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과정 전반에 걸쳐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3차례의 분임별 토의와 사업별 담당 공무원 면담 현장 견학을 통해 정책 여건상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심사하고 사업별로 개

선사항 등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 권고하는 기능도 맡게 되며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견을 전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민평가단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다시 한 번 다듬고 공약 관련 실 국장과의 전문분야가 참여하는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민선7기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누리집(www.jorbuk.gakr)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진성기자

## 대한민국 국기의 새로운 도약

무주 태권도원에서  
‘2018 태권도의 날 기념식’



2018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4일 세계 태권도성지, 태권도원 에서 열렸다

‘2018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4일 세계 태권도성지, 태권도원 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기원·세계태권도연맹·대한민국태권도협회·태권도진흥재단 공동주관으로 4일 오전 11시,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미동초등학교와 국기원 9단 최고고단자회의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기념사 낭독 등에 이어 국기태권도 지정 기념 퍼포먼스,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태권도의 날 기념식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태권도 9단 이동섭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장,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장용갑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등 주요 태권도 기관·단체장 및 태권도계 인사 400여명과 전라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 유송열 무주군의 회 의장·윤여일 무주군 부군수

등 지자체 및 단체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지난 3월 30일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 세계화와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이선장 계명대학교 교수와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기념하며 태권도를 상징하는 도복대를 송일 행정부지사, 유송열 무주군의 회 의장·윤여일 무주군 부군수

를 되새기게 했다.

한편, 2018 태권도의 날 기념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태권도 세계화와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이선장 계명대학교 교수와 김상진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장 등 총 12명이 수상했고, 대한민국태권도협회·국기원·태권도진흥재단의 기관·단체장 표창도 진행되었다.

/무주=전문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7일 우석대서 특강

‘한반도 정세와 청년들의 역할’ 특별강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석대학교를 찾아 한반도 정세와 청년들을 위한 특별강연을 갖는다.

우석대는 7일 오전 11시 문화관 아트홀에서 강경화 장관의 강연이 열린다고 4일 밝혔다.

강연 주제는 ‘지방 분권과 한국 외교 그리고 청년의 역할’이다.

우석대는 정영달 총장 취임 이후 사회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강연도 장 총장의 요청을 강경화 장관이 흔쾌히 받아들여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이 강연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방대학에서는 처음이다.

이날 특별 강연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우석대는 재학생과 교직원, 지



역주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시스

## 전북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전북도는 4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어린이집 원장 통학차량 운전자 보육교사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최근 일어난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해 보육교직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규정과 세립아법,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자동차 사각지대의 위험 아동학대 사례, 예방법, 관계자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로 무엇보다도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며,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